

사라지지 않는 인상에 대한 두려움

“ 4월 금통위, 예상대로 중립적이었지만 때파적 발언이 없지 않았음. 전쟁 발 물가 상승 압력이 현실이기 때문. 예상대로 딱 3월 FOMC 정도 수준의 발언. 1) 기존 정책 유지 2) 단기 인플레이션 위험 증가 인정 3) 영향력 판단은 이르지만 4) 통화정책 대응은 열어두는 것. **현재 상황에서 금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은 통화정책 방향성 예고가 아닌 상황 모니터링 후 대응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금통위였음.**

“ 통화정책 대응 여부는 1) 전쟁 장기화 여부 2) 국제유가 회복 시기에 달려 있음. 한은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통방문에서 제시한 경제전망이 변경되는 방향성 정도. 한은, 성장률은 2월 제시한 2.0%을 하회, 헤드라인 물가는 2.2% 상회, 근원 물가는 2.1% 소폭 상회 정도로 언급. 아직까지 성장 하방 위험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.

“ 5월 말 공개될 경제전망을 확인해야 하나 시일이 많이 남았음. 이번 금통위에서 언급한 정도, 대략 2%대 초중반 물가와 2%를 소폭 하회하는 성장을 이라면 인상은 굳이 필요하지 않음. 다만 전망 공개 시까지 전쟁이 종료되지 않았거나, 종전 후 피해가 심각해 유가 관련 인프라 재건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한국은행 전망의 기본 가정이라면 인상은 불가피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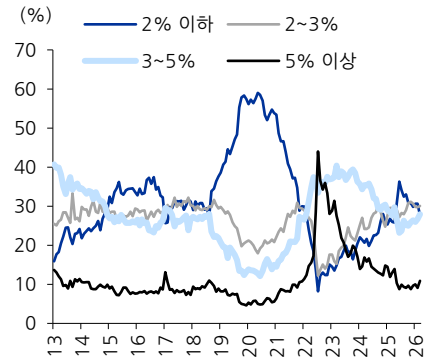
“ 물가 외에 성장을 하방 위험도 높아지고 있음. 경기적인 측면에서 다행인 것은, 반도체 수요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26.2조원의 추경도 편성. 현 정부의 특성 상 상황에 따라 다회성 추경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**성장률 하방 위험은 일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.** 결국 통화정책에서 좀 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성장률보다 물가임.

“ 3월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2.7%, 3년은 2.6%로 전월대비 각각 0.1%p씩 소폭 상승. 1년 기대인플레이션을 2~3%로 예상한 비중은 30.1% 인 것에 반해, 3% 이상을 예상한 비중은 38.8%로 물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. 국제유가와 기대인플레이션 간 동행성이 강한 만큼 국제유가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지 않을 시 기대인플레이션 추가 상승 가능성 있음.

“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, 물가 안정이지만 실제 지표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경로 중 기대심리 경로(기대인플레이션 조절)를 구두개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대인플레 지표는 매우 중요. 신현송 후보자 역시 기대인플레이션을 중시함. 15일 청문회에서 신현송 후보자의 특별하게 성향을 알 수 있는 발언은 확인하기 어렵겠지만, 시장의 인상 기대와 가능성을 진정시키기에도 역부족일 것.

“ 종합하면, **현재로서 기준금리 동결을 확신할 수 없고, 인하 가능성은 없음** (매우 강한 경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인하하기가 아니라면). 종전 및 국제유가 수준 등 복잡한 조건부이긴 하나, 인상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.

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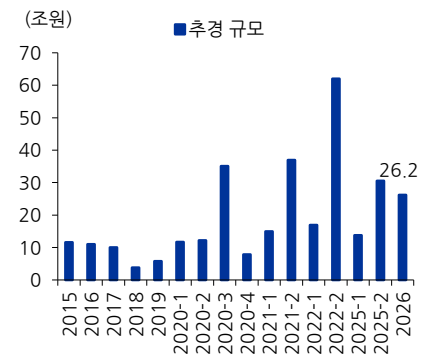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유진투자증권

유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의 동행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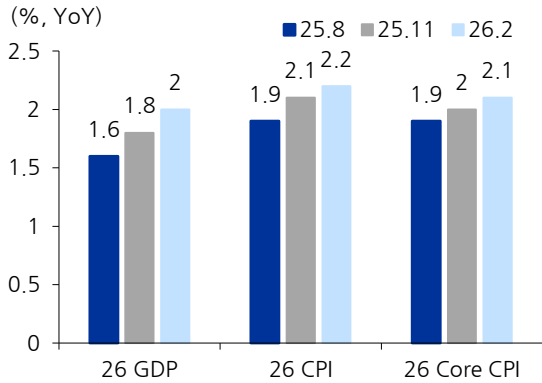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추경으로 성장률 하방 위험 상쇄 예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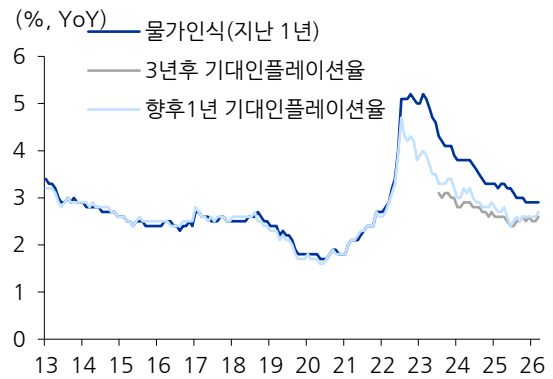
자료: 재정경제부, 유진투자증권

5월 전망, 성장률 하향 & 물가 상향 예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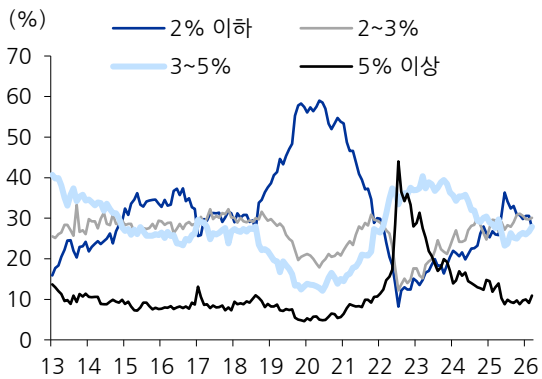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유진투자증권

과거 1년 물가인식과 1년, 3년 기대인플레이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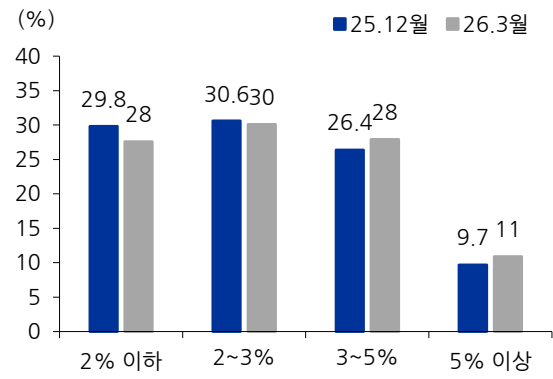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유진투자증권

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의 구간별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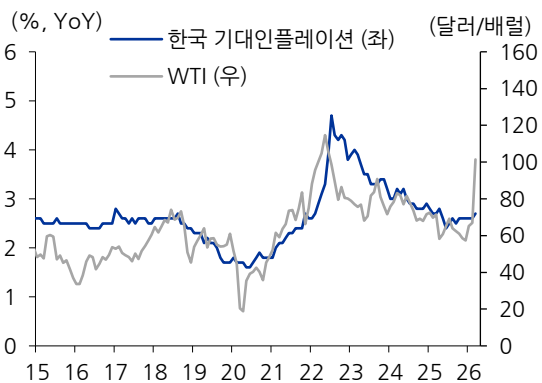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유진투자증권

연말 대비 3% 이상 물가 상승 비중이 늘어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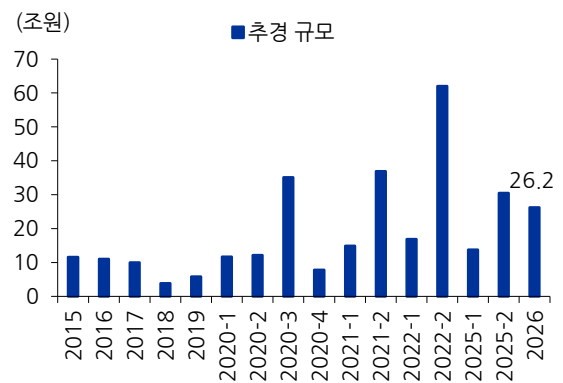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유진투자증권

국제유가와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의 동행성



자료: 한국은행,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정부, 고유가 대책으로 26.2 조원 추경 편성



자료: 재정경제부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